보도자료

문의
동향분석실(거시경제 전망)
(02) 3299-3101
주력기간산업실
(산업별 전망)
(02) 3299-3249

2005년 산업경제전망

2004. 12

산 업 연 구 원

차 례

<요약> ····· i

Ⅰ. 거시경제 전망 ····· 1
1. 실물경제 모습과 방향성 ····· 1
2. 주요 대외변수 전망 ····· 3
(1) 국제유가 ····· 3
(2) 환율 ····· 4
(3) 주요국 경기 ····· 6
3. 국내경제 전망 ····· 7
(1) 개요 ····· 7
(2) 민간소비 ····· 8
(3) 투자 ····· 9
(4) 수출입 ····· 9

Ⅱ. 산업별 전망 ····· 11
1. 2004년 동향 ····· 11
2. 2005년 전망 ····· 12
3. 업종별 전망 요약 ····· 16

<요 약>

Ⅰ. 거시경제 전망

□ '05년 성장률은 '04년 보다 낮아지나 체감경기는 개선 예상

○ 내년도 성장률은 금년 예상치인 4.9% 보다 약간 낮은 4.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기대되나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을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시가 본격화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경기부양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연중에 걸쳐 서서히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임.

<표 1>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3	2004			2005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	3.0	5.4	4.5	4.9	4.2	4.5	4.3
민간소비	-1.4	-1.0	-0.7	-0.8	1.9	3.8	2.8
총고정자본형성	3.6	3.3	2.8	3.0	4.3	5.7	5.0
설비투자	-1.5	3.0	6.0	4.5	6.2	9.2	7.7
건설투자	7.6	3.9	1.9	2.8	2.6	3.5	3.1
수 출	1,938	1,232	1,302	2,534	1,358	1,402	2,760
(증가율)	(19.3)	(38.3)	(24.3)	(30.7)	(10.2)	(7.7)	(8.9)
수 입	1,788	1,080	1,161	2,241	1,236	1,287	2,523
(증가율)	(17.6)	(25.7)	(24.9)	(25.3)	(14.4)	(10.9)	(12.6)
수출입 차	150	152	141	293	122	115	237

주 : 하단의 수출입은 통관 기준.

□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2004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심리 위축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05년 중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뉴딜정책 추진으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식됨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00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하방경직성이 강해져 조만간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장기 소비침체의 한 원인인 가계의 과잉채무부담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임.

□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전망

○ 2004년 상반기에 1.0%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간으로 0.8% 감소할 전망임.

- 최근의 소비선행지표 움직임에 비추어 내년 1/4분기까지 민간소비의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의 소비증가율은 상반기 1.9%, 하반기 3.8%, 연간 2.8%로 예상

□ 건설투자는 저조하나 설비투자는 건실한 증가 예상

○ 2004년 상반기 중 3.0%의 증가에 그친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는 6.0%로 증가율이 높아져 연간 전체로 4.5% 증가할 전망임.

○ 2005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내수경기 상승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도 비교적 높은 7.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소비회복의 진전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상반기에 3.9%의 증가에 그친 건설투자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증가율이 1.9%로 낮아져 연간 전체로는 2.8%의 증가에 머물 전망임.

○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효과가 예상되어 건설투자는 2004년과 비슷한 3.1%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지나 견조한 신장세 예상

○ 금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은 세계경제의 고성장세와 대중국 수출 호조, IT제품 등 주력제품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30.7% 증가한 2,53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의 150억 달러의 두 배 가까운 293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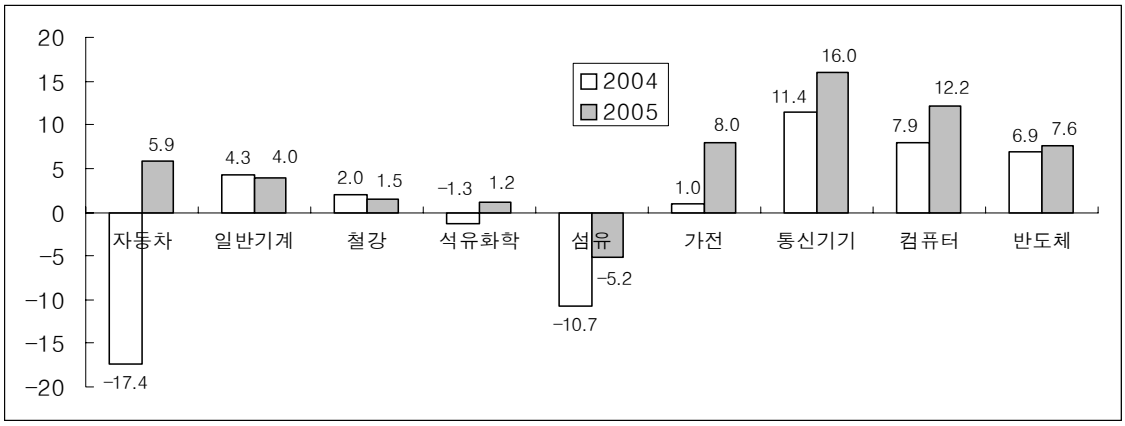
○ 2005년 중 수출증가율은 2004년의 수출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 IT 제품의 가격 약세 및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8.9%로 낮아질 전망임.

- 수입은 원화 강세와 고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제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신제품의 출시, 위성 DMB 등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에 따라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내구소비재의 내수는 2004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자본재 및 소재산업인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의 내수는 국내 산업생산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그림 2> 주요업종의 내수 증가율 전망



주 : 실질기준임.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는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임.

□ 내년에도 IT제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004년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5%를 상회할 전망이고, 특히 통신기기는 15.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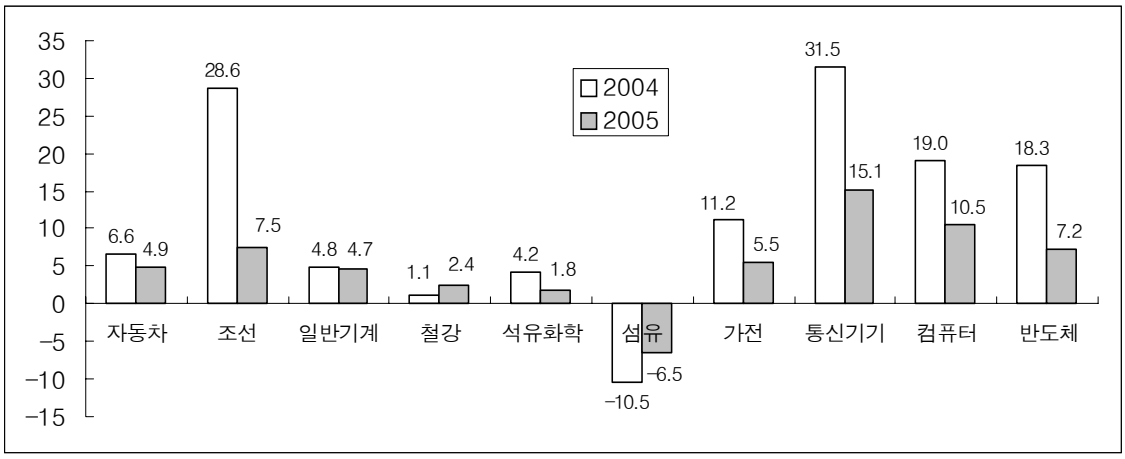
- 컴퓨터, 가전,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 내수증가율이 비교적 높은데 기인하며, 통신기기의 생산증가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기 때문

-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겠지만, 7%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자동차나 일반기계의 경우 내수는 회복되지만,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생산증가율은 2004년보다 낮은 5%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2005년은 2%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섬유산업은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림 3>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전망



주 : 실질기준임.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는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임.

□ 원화절상으로 주력산업 대부분 채산성 악화 우려

○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제품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달러표시 제품가격을 인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

- 특히, IT제조업의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은 채산성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 한편, 철강 및 석유화학은 제철원료나 원유를 해외에서 거의 전량 구매하므로 원화표시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될 수도 있음.

- IT제조업 중 수입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도 채산성 악화가 크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Ⅰ. 거시경제 전망

1. 실물경제 모습과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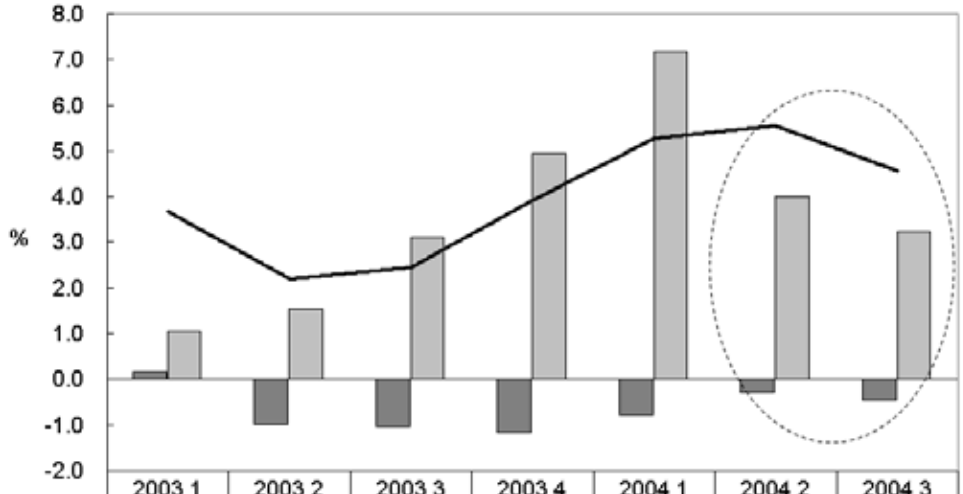
□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성장의 관건

○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주도에 의한 성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임.

- 국민계정 상으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여전히 성장세를 잠식하는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도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면서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부문이 침체된 내수부문을 견인하지 못하고 하강하고 있음은 향후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함.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추이



	2003 1	2003 2	2003 3	2003 4	2004 1	2004 2	2004 3
민간소비기여도	0.2	-1.0	-1.0	-1.2	-0.8	-0.3	-0.4
순수출기여도	1.1	1.5	3.1	5.0	7.2	4.0	3.2
실질GDP성장률	3.7	2.2	2.4	3.9	5.3	5.5	4.6

자료: 한국은행

○ 경기종합지수로 볼 때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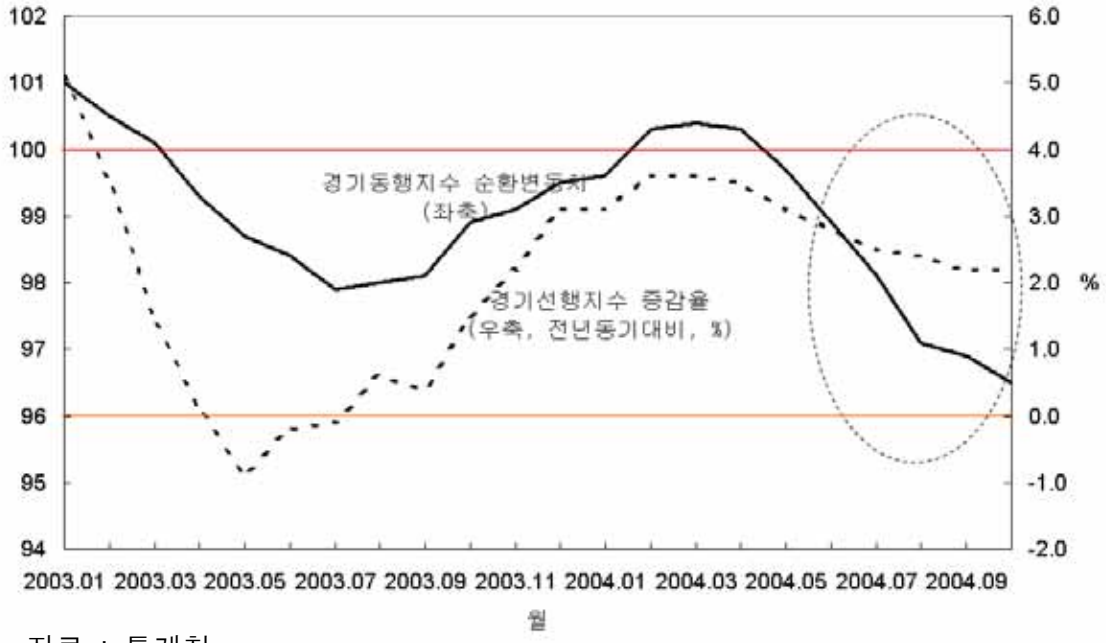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금년 3월에 정점에 도달한 후 100 이하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 역시 비슷한 시기를 전후로 둔화되고 있음.

○ 향후 실물경제의 향방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회복이 수출의 둔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2004년 중 유례없는 호황을 보인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고유가 기조의 지속 및 IT산업 경기의 둔화로 인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원화 환율의 하락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것임.

- 따라서, 6분기 연속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가 저점을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는 시기가 경기국면이 반전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

<그림 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2. 주요 대외변수 전망

(1) 국제유가

□ 30달러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

○ 2005년 중 국제유가는 그 동안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수급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급락세로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드나 적어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중에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어 원유 수요의 감소가 예상됨.
- 산유국들이 2004년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친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 안정화를 위해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가의 지나친 상승 방지를 위해 생산능력 확충과 산유량 조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큼.
- 2004년 중 일시적인 공급교란요인(러시아 유코스 사태, 미국의 허리케인 여파, 나이지리아 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 시장의 불안심리가 불식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원유수요 급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유가 급등에 편승한 투기수요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전망을 30달러 중반 아래에서 안정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는 악화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때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표 1> 참조)

-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유가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해를 피크로 2005년에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임(전망의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
- 악화 시나리오는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현재의 고유가 기조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임.

<표 1> 시나리오별 국제원유가 전망(두바이유 기준)

단위 : 연평균 달러/배럴

	2003년	2004년	2005년
기준 시나리오 (전망의 기준)	26.8	34 (26.9% 상승)	33 (2.9% 하락)
악화 시나리오		35 (30.6% 상승)	40 (14.3% 상승)

(2)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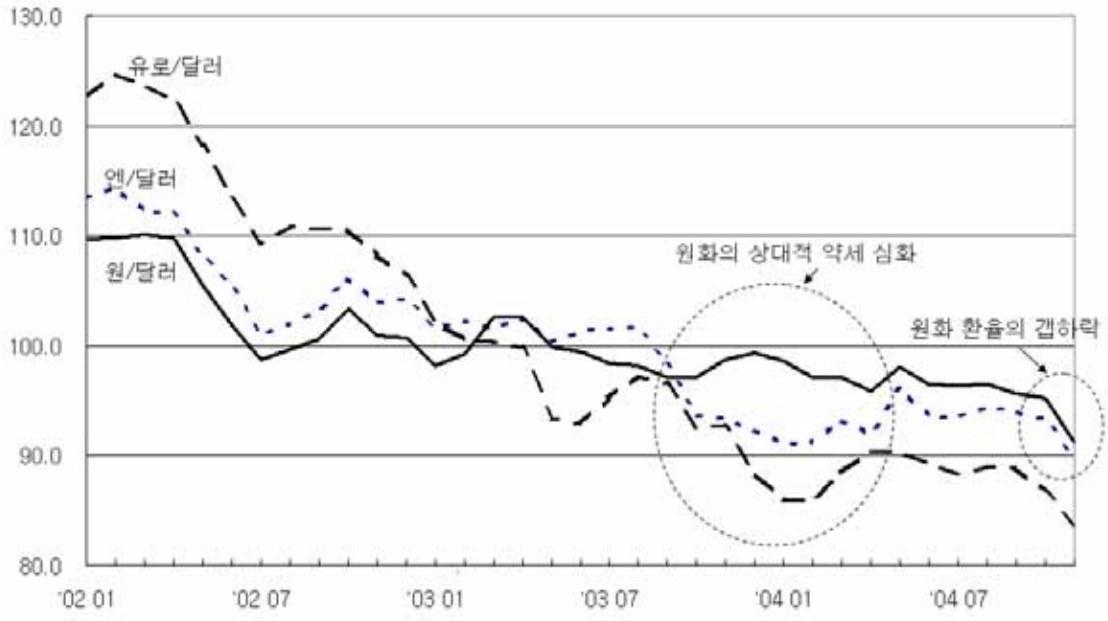
□ 2005년 중 연평균 1,035원 예상

○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00원/달러를 하향돌파한 이후 1,050원 마저 붕괴되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음.

- 4/4분기 들어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환율 하락 방어에 한계를 감지한 정부의 시장개입 자제로 누적된 갭하락 압력이 분출됨.(<그림 3> 참조)

<그림 3> 원, 엔, 유로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

('02.1월 ~ '04.11월 기간 중 각 통화의 대미 달러 평균 환율=100)



○ 향후 원화 환율은 최근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기는 하나 상승요인 보다는 하락요인이 강하여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임.

- 제2기 미 부시행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지속으로 재정·무역수지 적자의 해소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에 대한 글로벌 달러 약세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가능성
- 고유가 등으로 미국 경제의 소프트패치(soft patch)가 실패하고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제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
- 최근 중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 중 위안화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위안화의 절상 폭은 6%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
- 추세적인 환율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원화 환율의 과도한 하락(undershooting)에 따른 반작용과 수출신장세 둔화에 따라 어느 정도 하방경직성도 기대

○ 2005년의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초반에서 저점에 도달한 후 조정을 보이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중 원/달러 환율은 평균 1,035원으로 추정되어 9.9% 추가 하락할 전망임.
- 엔화 역시 달러화에 대하여 강세를 지속하여 5.4%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엔 환율은 2005년 중 100엔당 1,020원을 기록할 전망임.

<표 2> 환율 전망(기간 평균)

	2004			2005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변화율(%)
원/달러	1,167	1,132	1,149	1,030	1,040	1,035	-9.92
엔/달러	108.5	106.0	107.3	101.0	102.0	101.5	-5.41
원/100엔	1,077	1,068	1,071	1,020	1,013	1,020	-4.76

(3) 주요국 경기

□ 2005년의 성장세는 2004년 보다 다소 약화 예상

○ 최근 들어 세계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던 강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

  미국 성장률(전년동기대비): 5.0%(2004. 1/4)→3.9%(2004. 3/4)

-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회복을 보이던 일본의 성장세도 둔화 조짐

  일본성장률(전년동기대비): 5.9%(2003. 1/4)→4.2%(2004. 2/4)

- 유로경제는 여전히 1~2%의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 중국경제는 9%대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과열이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모습

○ 2005년 중 주요국 경제는 2004년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4.3%→3.5% 내외, 일본: 4.4%→2% 내외, 유로: 2.0%→2% 내외,
  중국: 9.0%→7~8%

<표 3> 주요 예측기관의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IMF	WB	EIU	OEF	IMF	WB	EIU	OEF	IMF	WB	EIU	OEF
전세계	3.9	3.9	3.9	3.8	5.0	4.9	5.0	5.1	4.3	4.2	4.2	4.4
OECD	2.1	2.0	2.1	2.0	3.6	3.5	3.6	3.5	2.9	2.6	2.7	2.7
(미 국)	3.0				4.3	4.3	4.3	4.4	3.5	3.2	3.1	3.7
(일 본)	2.5				4.4	4.3	4.2	4.1	2.3	1.8	1.8	2.0
(유 로)	0.5				2.2	1.8	1.9	1.8	2.2	2.1	2.2	1.7
아시아[1)]	7.7	7.8	5.8	-	7.6	7.9	6.6	-	6.9	7.0	6.0	-
(중 국)	9.3				9.0	9.2	8.9	9.2	7.5	7.8	8.1	8.1

자료: IMF, World Bank(WB),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Oxford Economic Forecasting(OEF)

주: 1) 기관별로 포함되는 국가가 상이

○ 세계경제의 바로미터인 미국 금리는 적정 수준(3-4%)까지 단계적인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 연준이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커서 소프트패치가 어려울 경우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

3. 국내경제 전망

(1) 개요

□ '05년 성장률은 '04년 보다 낮아지나 체감경기는 개선 예상

○ 내년도 성장률은 금년 예상치인 4.9% 보다 약간 낮은 4.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기대되나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을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시가 본격화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경기부양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연중에 걸쳐 서서히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임.

□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2004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심리 위축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05년 중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뉴딜정책 추진으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식됨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00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하방경직성이 강해져 조만간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장기 소비침체의 한 원인인 가계의 과잉채무부담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임.

(2) 민간소비

□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전망

○ 2004년 상반기에 1.0%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간으로 0.8% 감소할 전망임.

- 최근의 소비선행지표 움직임에 비추어 내년 1/4분기까지 민간소비의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4>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3	2004			2005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	3.0	5.4	4.5	4.9	4.2	4.5	4.3
민간소비	-1.4	-1.0	-0.7	-0.8	1.9	3.8	2.8
총고정자본형성	3.6	3.3	2.8	3.0	4.3	5.7	5.0
설비투자	-1.5	3.0	6.0	4.5	6.2	9.2	7.7
건설투자	7.6	3.9	1.9	2.8	2.6	3.5	3.1
수 출	1,938	1,232	1,302	2,534	1,358	1,402	2,760
(증가율)	(19.3)	(38.3)	(24.3)	(30.7)	(10.2)	(7.7)	(8.9)
수 입	1,788	1,080	1,161	2,241	1,236	1,287	2,523
(증가율)	(17.6)	(25.7)	(24.9)	(25.3)	(14.4)	(10.9)	(12.6)
수출입 차	150	152	141	293	122	115	237

주 : 하단의 수출입은 통관 기준.

○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의 소비증가율은 상반기 1.9%, 하반기 3.8%, 연간 2.8%로 예상

(3) 투자

□ 건설투자는 저조하나 설비투자는 건실한 증가 예상

○ 2004년 상반기 중 3.0%의 증가에 그친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는 6.0%로 증가율이 높아져 연간 전체로 4.5% 증가할 전망임.

○ 2005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내수경기 상승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도 비교적 높은 7.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소비회복의 진전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상반기에 3.9%의 증가에 그친 건설투자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증가율이 1.9%로 낮아져 연간 전체로는 2.8%의 증가에 머물 전망임.

○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효과가 예상되어 건설투자는 2004년과 비슷한 3.1%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4) 수출입

□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지나 견조한 신장세 예상

○ 금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은 세계경제의 고성장세와 대중국 수출 호조, IT제품 등 주력제품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30.7% 증가한 2,53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의 150억 달러의 두 배 가까운 293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2005년 중 수출증가율은 2004년의 수출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 IT 제품의 가격 약세 및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8.9%로 낮아질 전망임.

- 수입은 원화 강세와 고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Ⅱ. 산업별 전망

1. 2004년 동향

□ 주력업종의 수출급증이 산업성장을 주도

○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주력업종에서 큰 폭의 내수감소가 이루어지거나 정체를 면치 못한 반면,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업생산의 증가를 견인

- 자동차, 섬유 등은 전년 대비 내수가 2년 연속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석유화학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고, 조선, 일반기계, 철강, 가전 등의 내수 증가세도 3%를 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음.
- 반면, 섬유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20%를 상회하는 수출증가율을 기록

□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 IT제조업

○ 2004년에도 IT제조업이 높은 수출증가율과 안정적인 내수증가세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하였음.

-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조업 모두 두 자리 증가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통신기기는 3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
- 내수비중이 매우 낮은 조선산업은 높은 수출증가율의 영향으로 생산도 28.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는 17.4%의 내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증가세로 6.6%의 안정적인 생산증가세를 유지

2. 2005년 전망

□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지연으로 산업성장세 둔화

○ 2004년 달러 금액기준으로 30%나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 업종의 수출증가율이 2005년에는 9.2%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수출은 통신기기 한 업종을 제외하면 실질기준으로 전 업종이 한 자리 수 증가율 내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달러 금액기준으로도 조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만이 두 자리 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03년과 2004년 2년간 매우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영향과 더불어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 중국 경제의 긴축, 중국의 경쟁력 강화, 급격한 환율하락 등이 수출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섬유는 2005년에 미국, EU, 캐나다 등의 쿼터 폐지로 수출이 감소되겠고, 제품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철강 수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그 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반도체수출도 일본 업체들의 본격생산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2005년에도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IT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 국내기업 진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부품 및 설비수출 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 한편, 내수는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띨 것이나, 수출증가세 둔화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2004년 자동차 내수는 외환위기시기인 1998년을 제외하면 1991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05년에는 다른 여건변화가 없더라도 잠재수요의 일부 실현에 의해 6%의 정도의 내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제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신제품의 출시, 위성 DMB 등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에 따라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내구소비재의 내수는 2004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반도체의 내수는 가격하락으로 금액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하지만 물량기준으로는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폰, 디지털가전 등 반도체 응용분야의 국내 수요증가에 기인

- 한편, 자본재 및 소재산업인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의 내수는 국내 산업생산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 수출증가율은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내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아 2005년 주력산업의 생산증가율은 2004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내년에도 IT제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004년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기는 하지만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5%를 상회할 전망이고, 특히 통신기기는 15.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컴퓨터, 가전,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 내수증가율이 비교적 높은데 기인하며, 통신기기의 생산증가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기 때문

-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겠지만, 7%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자동차나 일반기계의 경우 내수는 회복되지만,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생산증가율은 2004년보다 낮은 5%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2005년은 2%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섬유산업은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일부 소재산업을 제외하면 원화절상으로 대부분 채산성 악화 우려

○ 원화절상 및 가격하락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제품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달러표시 제품가격을 인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

- 특히, IT제조업의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은 채산성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 한편, 철강 및 석유화학은 제철원료나 원유를 해외에서 거의 전량 구매하므로 원화표시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될 수도 있음.

- IT제조업 중 수입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도 채산성 악화가 크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연구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소폭 회복 기대

○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는 국내에서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없음.

-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생산능력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반도체의 경우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로 12“라인 투자 확대 기대

- 자동차산업에서도 GM대우나 르노삼성, 상해기차에 인수된 쌍용 등 외국인투자업체들에 의해 부분적인 투자확대 기대

- 조선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도크건조시설 대신에 육상 건조를 위한 투자를 일부 확대
- 차별화,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이나 자동화, 에너지절약, 환경, 합리화 등과 관련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통신기기의 경우 신규서비스개통에 따른 투자가 예상됨.

□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기반 강화 정책이 필요

○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및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정책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

- 최근 수출급증은 기업과 정부의 꾸준한 기술·품질개선 노력 및 지원에 기인하는 것임.
-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고급인력의 육성이 시급

○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이 심한 석유화학, 섬유 등은 반덤핑제소 등과 같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

○ 석유화학과 섬유업계는 시급한 과제인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

-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섬유업체의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선이나 철강 등은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

3. 업종별 전망 요약

< 자동차 >

○ 2005년 자동차 내수는 경기회복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내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전년대비 5.9% 상승한 116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2004년에 비해 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의 신모델 출시 등으로 전년대비 8.5%(자동차부품 포함) 증가한 3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생산은 수출증가 지속과 내수의 소폭증가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356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조선 >

○ 2005년의 선박 수주는 발주규모가 다소 줄면서 상대적으로 수주물량은 감소할 전망

○ 한편 생산 및 수출은 그동안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전년보다 더 증가할 전망

- 또한 선가 상승의 반영, 고부가가치선박의 건조 증가로 금액기준 증가율은 물량기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5년의 조선산업 생산 및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약 153억 달러로 추정됨.

< 일반기계 >

○ 내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산업,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로 투자확대가 기대되는 반도체산업 등의 수요산업의 호조로 전년대비 6.6%의 견실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중동지역 수출 확대, 중국 및 인도 등지의 해외 현지투자기업의 설비투자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기준으로는 17.5%증가율을 시현하여 수출액은 약 2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국산개발이 미흡한 반도체장비 등을 중심으로 15.1%의 수입증가세 전망

< 철강 >

○ 건축경기 침체로 봉·형강류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주요 철강소비산업의 국내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판재류 중심 철강 내수는 다소 늘어날 전망

- INI 당진공장 열연 설비가동, 포스코의 미니밀 2호기 재가동 등으로 생산은 조강 기준 4.0%, 철강재 기준으로는 2.4% 증가 예상

○ 국내생산 증가를 반영하여 수출은 2004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은 700만톤 수준으로 줄어 전년대비 4.3% 감소 전망

- 중후판 등의 일부 제품은 수입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철근, 형강의 수입감소폭이 커 전체 수입량은 감소 예상

< 석유화학 >

○ 2005년 중 내수는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3대 유도품 물량기준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1,015만 톤을 기록할 전망

○ 수출은 석유화학 수급불균형 및 중국 수입수요 지속 등 긍정적 요인 우위로 2005년 3대 유도품 물량기준 3.4%, 총수출금액기준 14.1% 증가 전망

○ 3대 유도품 기준, 2005년 중 생산은 다운스트림 부문의 설비확충 및 해외생산비중 증가로 전년대비 1.8% 증가된 1,775만 톤을 기록할 전망

○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 전방산업으로부터의 수요 증가, 수출증가세 지속,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2005년 3대 유

도품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7.9%, 금액기준으로 14.9% 증가 전망

< 가전 >

○ 내수는 업체의 적극적인 판매촉진 전략, 품질수준의 향상과 가격 하락, 특소세 폐지, 디지털 영상기기와 웰빙 가전 판매 확대 등으로 5%대로 회복될 전망임.

○ 수출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기 둔화로 디지털 기기 수요가 둔화되고, 한·일간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전략과 생산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달러화 기준 7%대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임.

○ 생산은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이를 보전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04년의 절반 수준인 3% 증가에 그칠 전망임.

○ 수입은 디지털 카메라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원화절상으로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8%대로 증가할 전망임.

< 통신기기 >

○ 그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이동전화기의 세계시장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8~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첨단제품으로의 대체수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내업체들은 첨단제품 중심의 수출전략과 영국 등 EU지역으로의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2005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

○ 내수시장은 신제품으로의 대체수요와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2004년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임.

○ 이처럼 수출과 내수에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생산 역시 전년대비 11% 이상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출시장에서는 중국업체의 경쟁력제고, 선진업체의 견제,

내수시장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여부 등이 성장 정도를 좌우할 것임.

< 컴퓨터 >

○ 보급률이 한계수준에 도달한데다 내구소비재여서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적 특성상 교체수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특수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내수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생산은 수출증가 둔화로 낮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생산 물량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생산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임.

○ 수출증가는 크게 둔화될 것이며 수입은 대체로 현상 유지할 것임.

- 세계 PC 수요는 전통적인 수출시장 외에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컴퓨터 수요증대가 예상되지만 원화절상, 가격경쟁력 약화, 경쟁심화 등의 요인외에 수출가격의 하락도 불가피할 것임.

- 반면 수입은 가격경쟁력 열세로 증가가 불가피하며, 중국산 부품을 포함하여 한국기업이 현지생산한 모니터 등 역수입 제품도 점차 증가할 것임.

< 반도체 >

○ 2005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우리의 주력제품인 메모리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은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공급적 측면에서는 메모리업계들의 12″라인 본격 가동화로 생산능력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수급여건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2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비록 수요시장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출 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므로 원

화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됨.

○ 내수는 반도체 자체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국내 휴대폰, 디지털가전 등 응용제품업계의 수요확대로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임. 다만 내수용은 대부분 비메모리이므로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해야 함.

<표 1> 주요 기존 주력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 동 차	생 산	1.0	1.8	11.9	6.6	4.9
	수 입	19.6	24.1	16.0	19.8	17.5
	내 수	-17.5	-22.8	-10.0	-17.4	5.9
	수 출	20.2	31.6	23.7	27.4	4.5
조 선	생 산	7.4	44.2	4.7	28.6	7.5
	수 입	-5.6	50.7	-40.5	2.3	-17.2
	내 수	-5.5	50.9	-40.3	2.9	-18.2
	수 출	7.4	44.1	4.6	28.5	7.6
일반기계	생 산	4.8	5.5	2.3	4.8	4.7
	수 입	12.3	17.5	17.2	17.3	2.7
	내 수	2.5	3.6	3.5	4.3	4.0
	수 출	16.3	24.1	23.9	24.0	6.8
철 강	생 산	3.1	3.1	-0.9	1.1	2.4
	수 입	27.6	35.7	-1.6	16.7	-4.3
	내 수	3.8	5.0	-1.0	2.0	1.5
	수 출	10.1	11.6	2.1	6.6	0.3
석유화학	생 산	3.8	6.5	1.9	4.2	1.8
	수 입	-13.5	-14.7	2.6	-6.2	7.9
	내 수	-1.8	-2.7	0.1	-1.3	1.2
	수 출	8.5	16.1	4.3	9.8	3.4
섬 유	생 산	-3.2	-9.0	-12.0	-10.5	-6.5
	수 입	-14.9	0.5	-2.0	-0.7	-3.5
	내 수	-15.4	-13.6	-7.1	-10.7	-5.2
	수 출	10.2	1.8	-13.5	-6.3	-6.7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12.
주 : 모두 실질기준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3대 유도품), 섬유(섬유사) 등은 물량증감률이고, 조선, 일반기계는 명목금액증감률에서 가격증감률을 차감한 것임.

<표 2> IT제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가 전	생 산	6.5	18.3	4.9	11.2	5.5
	수 입	13.6	19.0	-1.8	8.5	2.2
	내 수	1.9	9.9	-7.0	1.0	8.0
	수 출	8.4	24.9	22.8	23.6	2.4
통신기기	생 산	26.6	33.8	29.5	31.5	15.1
	수 입	4.2	21.5	6.2	12.6	3.3
	내 수	7.0	7.4	15.5	11.4	16.0
	수 출	40.2	54.5	41.3	46.1	18.0
컴 퓨 터	생 산	22.9	27.0	11.0	19.0	10.5
	수 입	2.4	9.9	15.3	12.6	6.1
	내 수	1.4	-9.5	31.7	7.9	12.2
	수 출	16.8	40.5	-2.8	15.8	2.0
반 도 체	생 산	48.1	25.3	13.1	18.3	7.2
	수 입	24.3	16.7	4.6	10.2	-0.2
	내 수	38.8	10.1	3.9	6.9	7.6
	수 출	23.6	40.6	15.0	25.1	1.7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12.
주 : 모두 실질기준임. 명목금액증감률에서 가격증감률을 차감한 것임.

<표 3>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 대)	3,178 (1.0)	1,675 (1.8)	1,713 (11.9)	3,388 (6.6)	3,556 (4.9)
조 선 (10억원)	13,517 (-0.5)	9,955 (33.2)	5,812 (-4.0)	15,700 (16.2)	16,371 (4.3)
일반기계 (10억원)	52,130 (5.3)	28,053 (7.9)	28,508 (9.1)	56,561 (8.5)	60,800 (7.5)
철 강 (천 톤)	53,264 (3.1)	27,168 (3.1)	26,665 (-0.9)	53,833 (1.1)	55,100 (2.4)
석유화학 (천 톤)	16,738 (3.8)	8,643 (6.5)	8,790 (1.9)	17,433 (4.2)	17,750 (1.8)
섬 유 (천 톤)	2,629 (-3.2)	1,214 (-9.0)	1,140 (-12.0)	2,354 (-10.5)	2,201 (-6.5)
가 전 (10억원)	32,034 (2.0)	17,150 (13.9)	17,300 (1.9)	34,450 (7.5)	35,500 (3.0)
통신기기 (10억원)	36,653 (15.1)	21,595 (25.6)	24,273 (24.7)	45,868 (25.1)	50,447 (10.0)
컴 퓨 터 (10억원)	22,967 (0.5)	13,083 (14.4)	11,949 (3.6)	25,032 (9.0)	25,557 (2.1)
반 도 체 (10억원)	37,242 (21.4)	22,538 (33.4)	22,542 (10.8)	45,080 (21.0)	45,210 (0.3)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3)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

<표 4>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3,624 (17.9)	2,043 (11.6)	1,971 (9.9)	4,014 (10.8)	4,452 (10.9)
조 선	987 (−2.6)	748 (60.9)	412 (−11.2)	1,160 (17.5)	1,180 (1.7)
일반기계	15,620 (24.7)	9,611 (27.0)	9,929 (23.3)	19,540 (25.1)	22,491 (15.1)
철 강	9,401 (30.7)	7,323 (65.2)	8,009 (61.2)	15,332 (63.1)	14,739 (−3.9)
석유화학	5,822 (22.7)	3,572 (24.6)	4,220 (42.8)	7,792 (33.8)	8,950 (14.9)
섬 유	5,897 (3.7)	2,971 (11.5)	3,382 (4.6)	6,353 (7.7)	6,815 (7.2)
가 전	3,497 (16.3)	1,997 (21.0)	2,025 (9.7)	4,022 (15.0)	4,350 (8.2)
통신기기	3,340 (8.5)	1,842 (28.2)	2,135 (12.2)	3,977 (19.1)	4,479 (12.6)
컴 퓨 터	5,672 (−0.2)	3,060 (10.5)	3,281 (13.0)	6,341 (11.8)	7,039 (11.0)
반 도 체	21,328 (22.0)	11,724 (17.8)	12,156 (6.9)	23,880 (12.0)	25,320 (6.0)
합 계	75,188 (18.4)	44,891 (26.0)	47,520 (20.3)	92,411 (23.0)	99,815 (8.0)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부품포함, 석유화학은 산자부 수출입통계분류 석유화학(MTI코드21), 섬유는 섬유사, 섬유제품, 의류기준임.

<표 5>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 대)	1,324 (-17.5)	586 (-22.8)	508 (-10.0)	1,094 (-17.4)	1,159 (5.9)
조 선 (10억원)	1,184 (-7.1)	878 (57.5)	478 (-25.4)	1,349 (13.9)	1,259 (-6.7)
일반기계 (10억원)	52,420 (5.1)	28,102 (7.3)	28,030 (6.8)	56,132 (7.3)	59,848 (6.6)
철 강 (천 톤)	45,365 (3.8)	23,816 (5.0)	22,450 (-1.0)	46,266 (2.0)	46,953 (1.5)
석유화학 (천 톤)	10,170 (-1.8)	4,953 (-2.7)	5,080 (0.1)	10,033 (-1.3)	10,150 (1.2)
섬 유 (천 톤)	1,773 (-15.4)	829 (-13.6)	755 (-7.1)	1,584 (-10.7)	1,501 (-5.2)
가 전 (10억원)	21,190 (-2.3)	10,437 (6.1)	10,480 (-7.7)	20,918 (-1.3)	22,081 (5.6)
통신기기 (10억원)	17,512 (-2.1)	8,970 (1.8)	9,8095 (12.1)	18,734 (7.0)	20,928 (11.7)
컴 퓨 터 (10억원)	11,877 (-13.7)	5,806 (-16.7)	6,130 (24.3)	11,960 (0.7)	12,685 (6.5)
반 도 체 (10억원)	39,378 (24.1)	21,198 (12.1)	20,582 (0.6)	41,780 (6.1)	42,730 (2.3)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3)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

<표 6>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23,346 (33.5)	15,053 (41.9)	16,888 (32.6)	31,941 (36.8)	34,643 (8.5)
조 선	11,334 (4.3)	8,526 (36.2)	5,124 (1.0)	13,650 (20.4)	15,370 (12.6)
일반기계	15,377 (23.0)	9,568 (29.0)	10,345 (30.0)	19,913 (29.5)	23,398 (17.5)
철 강	9,280 (31.4)	6,096 (40.9)	7,153 (44.4)	13,249 (42.8)	13,350 (0.8)
석유화학	11,917 (28.6)	7,417 (32.5)	9,320 (47.5)	16,737 (40.4)	19,100 (14.1)
섬 유	15,253 (-2.7)	7,477 (2.5)	7,799 (-2.0)	15,276 (0.1)	14,099 (-7.7)
가 전	12,610 (17.2)	7,749 (29.6)	8,050 (21.4)	15,799 (25.3)	16,950 (7.3)
통신기기	19,411 (36.4)	12,659 (50.8)	15,016 (36.3)	27,675 (42.6)	33,000 (19.2)
컴 퓨 터	14,977 (15.7)	9,296 (43.7)	8,422 (-1.0)	17,718 (18.3)	19,298 (8.9)
반 도 체	19,535 (17.5)	12,872 (55.8)	13,888 (23.2)	26,760 (37.0)	27,720 (3.6)
합 계	153,040 (20.1)	96,713 (37.0)	102,005 (23.8)	198,718 (30.0)	216,928 (9.2)

주 : 1) (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부품포함, 석유화학은 산자부 수출입통계분류 석유화학(MTI코드21), 섬유는 섬유사, 섬유제품, 의류기준임.